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12 주

특별한 은혜와 은혜를 예비함

2008년 2월 18일 ~ 3월 1일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248, -, 250, 526, - (영 312, 719, 319, 720, 817)

성경: 로마서 4:1-25; 갈라디아서 4:1-31; 히브리서 11:1-40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제 12 주 : 특별한 은혜와 은혜를 예비함

☞ ☞ ☞ ☞ ☞ 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요한계시록 3:17-18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 고린도후서 9:8

8.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계시록 3장에서 주님은, 『네가 … 가난한 것과 …』 (17절)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다. 이 가난은 창고에 아무것도 쌓아 놓은 것이 없음을 말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잠깐의 부족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족함을 뜻한다.

◆ 많은 형제자매가 특별한 은혜의 체험에 의존함

많은 형제자매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그들은 특별한 은혜의 체험으로 유지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들은 일시적인 은혜의 공급에 좌우된다. 그들은 「13 년 전」에 보았던 계시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전에 우리 생활에 있어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은혜의 역사라고 말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그분의 은혜를 제하여 버리셨다면, 우리의 생활은 글자 그대로 공허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시기 원치 않는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

두시기 위하여 특별한 은혜로 인한 중재에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한 은혜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갈망은 우리가 은혜의 풍성한 저축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저축이 없다. 결과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은 어떤 악한자들은 기도와 금식으로만 쫓아 낼 수 있다고 하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특별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그것이 없이는 그들이 필요한 능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들의 허리를 단단히 매지 않고, 무절제하고, 영이 거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은혜의 특별한 분배로 살아야만 한다. 우리가 단지 주님 앞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특별한 은혜에 의해 살았을 때 그것은 이해 될 수 있지만, 주님을 믿는지 일년 혹은 이년이 지난 후에도 그와 같은 은혜에 여전히 의존하여 살고 있다면 이것은 가난과 병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가난은 어떤 별도로 예비된 은혜가 없이 특별한 은혜에 의하여 산 결과이다.

무엇이 부(富)인가? 부는 가난의 반대이다.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비된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은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가난은 내적으로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펼쳐 버릴 수 있다.

☞ ☞ ☞ ☞ ☞ **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에베소서 4:7**

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 **베드로후서 1:2**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베드로후서 3:18**

8.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바울은 예비된 은혜를 가졌음**

많은 사람들은 영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시점에 그들에게 신선한 영감이 없다면 그들의 말은 중단된다. ... 심지어 처음 열 두 사도들조차,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의 경우에도 영감이 지속되지 않

았다. 한 경우에 그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고전 7:25上)라고 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가 말했다. 달리 말해서, 그는 계시나 영적 영감이나 혹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말씀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놀라운 것이 있다. 바울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25下)라고 말했다. 바울은 그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 거의 이 천년에 가까운 지난 과거를 통하여,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바울의 발언에 대하여 접근하기를 두려워하였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말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즉각적인 영감이 없을 때, 그는 말할 수 있었다.

아무 영감도 없이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제넘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별도로 예비된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영감이 없을 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지 오늘 필요한 은혜만을 주실 뿐이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현재 필요에 맞는 특별한 은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영감이 없을 때 한마디의 말씀도 갖고 있지 않다.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들은 아무말도 할 수 없다.

여기서 기본적인 원칙을 발견해야 한다. 바울은 즉각적인 영감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갖고 있었다. 그는 즉각적인 영감과는 별도로 저축된 것이 있었다. 그는 여러해 동안 주님을 따라갈 때문에 이 저축을 갖고 있었다. 그는 제한되었었다. 그는 죄와 실패를 피하였다. 여러해 동안 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수 년에 걸쳐서 그의 속으로 어떤 것들이 모아지고 있었다. 비록 그가 어떤 즉각적인 영감이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었다. 이것이 그에게 예비된 것들이며 다른 말로 말해서 그의 풍요함들이다.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도 고린도인들에게 쓴 그의 서신만큼 우리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는 다만 그 자신의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특별한 영감을 받은 것이 없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교회에 말하는 계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 그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 말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사람이 변하고 깎이고 정화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도록 한 신약의 고통을 접촉하게 한다. 이것이 부요함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러해 동안 역사하신 결과인 내적 예비이다. 특별한 은혜는 사람을 이와 같은 봉

우리로 이끌 수 없다.

☞ ☞ ☞ ☞ ☞ **수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누가복음 6:12**

12.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마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 **고린도후서 12:9**

9.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마태복음 13:52**

52.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예비된 은혜로 부유하게 되어야 함**

나는 종종 형제자매들이 특별한 은혜에 너무 의존적이어서 주기적인 도움 가운데 이러한 체험들이 오게되어 그들의 말이나 마음의 상태가 비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을 보게되는 것이 매우 비탄스럽다. 이 얼마나 가난에 젖은 상태임을 보여주는가! 일단 이런 종류의 사람이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는 빈털털이가 된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제하여지면 우리 모두가 문자 그대로 궁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주지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무엇인가가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조성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람안에 하나님의 예비 저축 또한 하나의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연명하며 살고 있지만, 그들의 순간의 비용을 채워주는 무엇인가 들어오면 허비해 버린다. 그들은 시험에 견디지 못한다.

무엇이 시험인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하지 않으신다거나, 우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신다는지 혹은 우리와 교통하지 않으시는 듯하게 보일때 등이다. 마담 귀용은 시험을 가장 잘 이해하였다. 영적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덮거나 입을 닫은 듯하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거나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너무 조용하여서 하늘에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이다. 이런 시점의 시험은 즉각적으로 예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 짓는다.

가난한 자는 기도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의 만찬의 신선함으로 그의 생활

을 유지하고 있다. 그에게 이런 것들이 없을 때마다 그는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비틀거리기 때문에 그 주 동안에는 실패한다. 많은 사람들은 일생을 위한, 그들의 생활 중 모든 방면을 위한 특별한 은혜에 의존한다. 그들은 예비한 것이 없다.

어떤 사람, 마담 귀용과 같은 사람은 한번에 수 개월 간의 시험을 통과한다. 그 시험동안 세상 전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은혜의 내적 예비기가 있는 사람은 그런 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는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그는 속 안으로 충분한 어떤 것을 갖고 있다. 이 어떤 것이 부(富)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한 부요함이 다.(계 3:18上)

요약하면, 가난은 예비기가 없는 것이며, 부요함은 예비기가 있는 것이다. 물론 영적인 예비를 의미한다.

어떻게 예비된 부요함을 갖는가

1) 시간은 본질적 요소임

어떻게 우리가 예비함을 갖고 내적으로 부요해 질 수 있는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에 대한 질문이다. 젊은 형제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바란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아무도 진실로 부요한 사람은 없다. 아마 당신은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들인 사람이 어떤 풍요로움을 가질지 모른다. 시간을 들이지 않은 사람의 의심할 것 없이 가난하다. 젊은이들이 부요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이 중요한 요소이다. 전에 우리는 어떤 젊은이들이 근본적인 영적 문제들에 있어서 나이든 사람들을 앞서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가 최근 푸초우에서 어떤 보다 깊은 문제들을 만질 때 뛰어난 젊은 형제들이 가장 실질적인 문제들을 붙잡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얼마나 많이 영적 예비함을 갖고 있는지 여러 젊은 형제들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이 아주 작은 예비만을 갖고 있지 않을까 두렵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다는 것은 가장 알팍한 어리석은 행동이다. 여러분은 앞에 여전히 긴 과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은 매일 매일 이 과정에서 성령에 의한 조성되고 확립되어야 한다. 시간이 첫번째 중요한 문제이다. 아무도 이 문제를 뛰어 넘을 수 없다.

☞ ☞ ☞ ☞ ☞ 목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에베소서 5:14-16

-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23下, 25下-27

- 23. ...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 25. ...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어떻게 예비된 부요함을 갖는가 (계속)

2) 체험이 본질적 요소임

둘째로, 우리는 여러가지 체험을 통과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체험을 통과하지 않았다. 만약 풍성하게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체험을 통과해야 한다. 통과해야만 하는 체험은 성령의 징계이다. 어떤 사람들은 십 여년동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매우 관대한 것처럼 보이는듯 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에게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그것은 성령이 그들의 일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손에 붙잡고 놓지 않는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매우 혹독하게 징계를 받는다. 성령이 그들의 상황이나 양심을 통하여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상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들의 양심에도 거리까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통과하여 유리한 점이 있을지라도 엄격하지도 깎이지도 저지되지도 충분히 벌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의하여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각각의 이러한 모든 상황은 우리의 부요함에 더해진다. 문제가 적으면 적을 수록 우리는 적게 예비하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더 조금 밖에 전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체험 없는 말을 할 수

없다. 말씀 가운데의 우리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통과하며 체험한 것들에 비례한다.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 앞에서 배운 공과를 통하여 나온다. 이것은 교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해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매일 매일의 행보에서 우리를 이끌때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배우는 매일의 체험함에 있어 나태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실망과 환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분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로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고개 숙이기 바란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워싸고 있지만 어떤 자들만이 시험에서부터 보호받는 것 같다. 이와 같은 형제 자매가 매우 평안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의지함이 이 성도들에게서 매우 적거나 궁핍할 정도임을 곧 느낀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이 솔직한 말을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시험에 닦혔을 때 고개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여, 당신이 나를 위하여 어떤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선과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서 다른 자들이 없음으로 내가 교회에 공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만들어 내실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험과 고난을 주실면서 우리를 잘못 다루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너무도 잘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심으로 우리에게 특전을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주 앞에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통과 했었는가?」

☞ ☞ ☞ ☞ ☞ **금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로마서 8:28-29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 히브리서 12:9-10, 14-15上

9.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예케 하시느니라
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어떻게 예비된 부요함을 갖는가 (계속)

3) 종말을 위한 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 하나님은 쉽게 처리하시지 않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행하시는 것을 너무도 많이 명료하게 하고 있다. 소를 잃고, 양이나 종이 불타고, 집이 무너져 내리고, 아이들이 죽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몸에 아픈 곳이 있든 없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입술과 혀가 복종하여야 하고 입이 티끌로 간청하여야 한다(욥 1:6-2:10, 42:1-6). 그와 같은 날이 올 것이다. 야고보의 서신은 5장 11절의 끝에서 「주께서 주신 결말 ...」 이라 적혀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는 우리의 시험이 자주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시험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끝에 이르렀는가 아닌가에 관한 것을 알게 된다. 욥의 아들들은 사망했다. 우리가 사망해도 좋을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 사람에게는 잃어도 좋을 만큼의 많은 아들들이 없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욥은 매우 무거운 다루심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궁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시험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사람은 많은 체험들을 겪어야 하지만, 그가 통과 할 수 있는 상화는 오직 제한된 숫자뿐이다. 만약 사람이 그가 겪은 것에서 공과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께서 주신 결말에 이르게 될 수 없다. 이것은 주께서 그분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이다. 만약 주께서 어떤것도 얻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더 많은 준비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다면, 우리는 단지 많은 날들과 다름과 시험과 징계를 허비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두려운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루심을 통과하지만, 그들은 부숩지며 그것들로부터 나오지 못할 때, 쓸모 없는 그릇들이 되고 만다. 이것은 예레미야 18:4에서 말하는 토기장이와 같다. 바닥은 잘 만들어지지 않은 토기들로 덮여있다. 비록 그것들이 불속에 넣어 구워졌다고 해도 깨진채로 바닥에 버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주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충분한 체험을 통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체험을 겪은 후에 영광에 도달한 그릇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은 단지 체험을 통과하지 않았다. 어느날 하나님이 종말의 시점이 왔던 것을 보았다. 하나의 새로운 조성이 그에게 있었으며, 그는 변했다. 이것은 근본적인 중요성의 문제이다. 그것은 더 많은 생명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조성하는 문제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종종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받는 것이라고 선포할 것이다. 옛 사람은 바뀔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옛 사람을 못 박으셨다는 것은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넣으셨다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제하여 버리신다면 옛 사람은 여전히 옛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사람은 변할 수 있으며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고 말한다(롬 12:2). 단지 우리 안의 새 생명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이 역사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다른 사람과 오랜 시간동안 지낼 때 그 사람과 닮아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동안 함께 지낼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는다면 실로 이상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우리를 그분과 닮게하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새롭게하는 것이고 변화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공과를 배우고 결말에 이르기를 희망한다. 희망컨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비한 시간과 하나님 앞에서 배운 공과들이 그 결말을 갖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그 공과들을 배우고 결말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워 넣으셨다. 오직 그때만이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서신을 읽거나 듣는 것으로 얻을 수 없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배움으로부터 온다(엡 4:20). 우리는 다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행한다. 우리는 이 자격을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공급하지 전에 갖추어야 한다.

4) 빛 또한 필요함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빛이다. 풍요한 사람은 많은 빛을 받는 사람이다. 단순히 공과를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영 안에 빛비춤을 해주셔서하며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것이 일어난 것을 단

순히 알기만 하지 않는다. 일어났던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의 가르침으로 성형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을 다른 사람을 공급하기 위한 말씀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빛이 올때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공급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다루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다루심의 종말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르도록 해 준다. 빛비춤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고 복종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름의 종말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열매가 맺고 이 열매는 성숙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종말이다. 이런 종류의 빛비춤이 계시록 3장 18절의 안약이다. 이것이 볼 수 있게하고 빛나게 한다.

☞ ☞ ☞ ☞ ☞ **토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욥기 40:1-2**

1.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찌니라

📖 **욥기 42:1-2**

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2.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줄 아오니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성령의 징계에 관하여**

성령의 징계는 성령이 우리의 외적 환경에서 우리를 어떤 특정한 목표로 보내기 위하여 역사 할 때, 또 우리에게 내적 요구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역사가 성령의 징계라고 부른다.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목적을 즉각적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은 우리를 복종의 지점까지 데려갈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순종적으로 만들 그 날이 절대로 올 것이다. 성령의 징계는 종종 우리의 순종을 불러낸다. 이것은 우리 자신 속에 순종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수 년동안 주님을 믿어 온 형제 자매들은 그들의 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으며 주께서 말씀하시고 복종했던 때가 몇 번인지 셀 수 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시 복종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말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되돌아 보고 생각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복종할 의사가 없었던 때가 몇 번인지를 셀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에는 복종했다. 이것이 성령의 징계의 결과이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복종의 상태에 있지만,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삼년 후에는 우리의 저항은 사라지고 더이상 불복종은 없게 된다. 이것이 성령의 징계의 결과이다. 우리 자신에 의해서 순종할 때, 그 일은 속히 행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을 때 일지라도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 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순종의 지점에 옮겨질 수 있다. 이것이 성령의 징계의 결과이다. 나는 종종 성령의 징계가 순종에 대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령의 징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우리를 순종토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시고 우리가 순종토록 명하신다. 둘째는 성령의 징계는 우리의 순종을 취하는데 있다. 우리는 순종하려는 아무런 의사도 없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밖에 없는 정도에 이르게 한다.

돈을 무척 사랑하는 한 형제가 있었다. 성령은 그를 여러번 징계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었다. 지난 삼사년간 많은 일들이 그의 길에 거처갔는데 이로 인하여 그는 매우 화가 났다. 그러나 오늘은 무의식적으로 더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복종의 영 안에서 포기하게 되었는가? 내가 만약 순종의 영 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여야 하는가? 내가 만약 불복종의 영 안에서 포기하면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나는 그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한 모든게 괜찮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속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매우 좋다. 이것은 우리가 보다 적게 응징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다루심을 모면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더욱 속히 다른 쪽으로 도달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협력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한 그분의 선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움직이실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소중한 것이며 우리의 환경을 통한 성령의 외적인 역사하심 또한 매우 중요하다.

◆ 추구 자료 ◆

(주) 이 내용은 워치만 니 형제의 『특별한 은혜와 예비된 은혜 (Special Grace and Reserve Grace)』 에서 인용된 글입니다.

제 3 부: GTA 권속 교동

1. 교회 생활 안에서의 체험

어떤 한 형제는 그가 실패할 때까지 그의 믿음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는 심음의 실제적인 의미를 배우기 시작했다. 만약 우리가 가난에 처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기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파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을 모른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실질적인 경배를 모른다. 만약 체험이 없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난하다. 어려움을 피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다. 쉬운 환경을 구하는 자는 모두 가난하다. 만약 우리가 전진하기 원한다면, 통과하여야 할 어떤 환경들을 구해야만 한다. 우리가 더 배우려고 하면 할 수록, 우리는 더 체험하여야 한다. 우리의 소망, 믿음, 그리고 순종 모두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통과하게 하는 이와 같은 다른 상황 속으로 온다. 만약 우리가 외적으로 한 가지 상황을 더하게 되면, 우리는 내적으로 영적인 부를 한 가지 더 축적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매 상황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육체에 힘들거나 우리가 싫어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머리 숙여 말해야 한다. 『이것은 기회이며, 평생 단 한번의 기회이며,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기회이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2. 기도의 부담

1. 대학생 - 대학생(중국어와 영어)을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캠퍼스에서 주님의 간증이 더 빛을 발하기를 구합니다.
2. 중국어 복음 집회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209 명이 참석하였고 이중 28 명이 새로운 복음 친구들이며, 주께서 이들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3. Grade 6, 『예수와 나 (Jesus And Me - JAM)』 : Grade 6 「JAM Sessions」 이 3월 1일, 토요일, Hall 3(7 Gretna)에서 시작됩니다. 6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바라며, 이 집회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되기를 바랍니다.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All Halls	Sunday, 10:00 AM	Sheppard Hall	671 Sheppard Ave. E, Toronto, ON M2K 1E6 (416) 221-7610
Youth	Sheppard	Saturday, 7:30 PM	Cecil Hall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588
College/Univ.	Cecil	Friday, 7:30 PM	Gretna Hall	7 Gretna Ave., Toronto, ON M4A 2H5 (416) 757-7117
Grade 6	Gretna	Saturday, 7:00 PM	자매집회	매주 화요일 오전 11:00 (한국어 자매집회)
Prayer Meeting	Sheppard/Gretna	Tuesday, 7:30 PM	소그룹	매주 화요일 오전 11:00시 (한국어 7점 소그룹)
	Cecil	Tuesday, 7:00 PM	소그룹2	매주 수요일 저녁 7:00 (한국어 7점 소그룹2)
Web Page	www.churchinontario.org		Web Page2	www.thechurchinontario.ca

(이 아침부흥지는 영어 아침 부흥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및 한글 아침 부흥지는 www.thechurchinontario.ca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